

수험생 여름방학 수시·수능 동시 대비

내신성적·학생부 분석 후 수시 지원 전략 수립

6월 모평 토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전형 확인

여름방학은 대입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수시모집까지는 두 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는 네 달이 남은 이 기간에 수시·수능 전략을 잘 세워 어떻게 보내느냐가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3을 비롯해 입시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을 200%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기말고사가 끝난 시기부터 여름방학으로 생각하고 수시와 수능 동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수시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부이며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1학기 학생부 마감일은 8월 31일이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이 시기까지 보완해야 할 항목, 잘못 기입되거나 누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관리하거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완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

여름방학은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기도 하다. 수시 원서 접수 시기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시작된다. 이때 자신의 수능, 교과, 서류, 대학별고사 경쟁력을 토대로 구성된 '수시 지원 대학&전형 리스트'인 수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우선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상향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 대학 및 전형을 추리면 된다. 이때 교과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장 추천 여부를 확인해 학생부교과전형을 염두에 두고, 비교과 항목이 좋은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시전형에 집중하는 학생이라면 수능에 대비해 부족한 과목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름방학 이후에는 9월 모의평가,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고사 등이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 대비에 온전히 시간을 쏟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수능 준비에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

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는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9월 1일) 전 기간이자 여름방학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최대한 수능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시간 관리는 필수다. 방학 기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한 후 주별→일별 순으로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학습 전략이다. 계획은 공부 시간이 아닌 학습량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9월 모의평가 직전에는 시험 시간에 맞춰 기출문제 등으로 모의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다.

문제풀이 연습 이전에 영역별로 자신의 취약 유형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취약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월 모의평가 각 영역에서 본인이 틀린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 학습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위권은 물론 최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개념 정리는 필수이므로 취약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공부하면서 틀리는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은 특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 취임 1년

4개 분야 TF 운영...대학 안정화 중점

기관장 선출·산하학교 통폐합·공영형 사립대 전환·재정 강화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취임한 김 이사장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기치로 내걸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이사장을 만나 대학의 현안과 법인의 당면 과제를 들었다.



-법조인으로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사립학교 이사장을 맡았다. 계기가 있었는가?

▲헌법재판관 퇴직을 앞두고 중·고교 시절을 보냈던 제2의 고향인 광주에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주어져 2018년 11월부터 전남대 석좌교수로 일하던 중,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조선대 정이사 추천 의사를 들었습니다.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선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고심 끝에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해달라.

▲취임 당시, 조선대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데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 무엇보다 대학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구성원들의 협조로 대학은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안정을 바탕으로 4개 분야 TF를 구성해 앞으로 법인과 대학이 발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선대가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법인발전을 위해 4개 분야 TF를 운영중입니다. 기관장 선출(임), 산하학교 통폐합 연구,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재정건전성 강화 TF입니다.

먼저 대학총장과 부속병원장의 선출과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기관장 선출(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장과 병원장 역량에 따라 기관 운영의 성패가 달린 만큼 걸맞은 기관장을 뽑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산하학교 통폐합 연구 TF는 조선간호대와 조선대(간호학과)간, 조선간호대와 조선이공대간 통폐합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 각 대학의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조선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사회에서는 2020년 12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최초로 이사의 중임 횟수 제한,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선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2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있지만, 설립취지에 맞춰 공영형 사립대학에 준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부속 병원 신축을 논의하는 재정건전성 강화 TF도 설치했습니다. 건립 50년이 된 부속병원은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해 병원신축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도 신축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TF를 설치했습니다. 병원 신축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신축위원회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사장 취임 이후 대학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는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고 학령인구의 급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조선대 신입생 총원율이 97.06%로 타 대학에 비해 높았지만,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이 선행돼야 하고,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추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으로서 혁신과 구조개혁이 시의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구조개혁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끌어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이사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조선대 설립취지와 건학정신을 되새겨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조선대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것입니다. 2021년 사회혁신 지원사업을 잘 수행해 회계의 투명성, 법인운영의 책무성,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수익구조의 다각화와 확대를 통해, 각 산하기관이 책임경영 아래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희종 기자 chae@

지스트, 신안 신의증서 과학캠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 확산 및 배움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최근 이들 동안 신안 신의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사진)

지스트 피움 봉사단과 함께하는 신안에서

의 과학캠프 프로그램은 30명의 신의중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전 조별 챌린지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세상 ▲요리조리 피해라 자동차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공계 수업 주제로 진행됐다.

〈지스트 제공〉

광주대, 희망병원·참병원과

작업치료전문인력 양성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지역사회 작업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힘을 모으고 있다.

광주대는 최근 광주희망병원과 광주참병원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기관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대는 올 한해 동아보건대를 비롯해 서구사망심리발달재활센터, 채움아동발달센터, 피우다이이발달연구소, 사회복지법인 모니카, 광주아주병원, 광주365재활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대는 각 기관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공동수행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협력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연계 교육과정, 인턴십 및 현장실습 시행 등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방요순 광주대 작업치료학과장은 "학생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현장실무를 경험하고 취업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모든 학생이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